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코로나 여파 문화예술계 지원

# 창작디딤돌 확대... 사업 중도 포기 불이익 없애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올해는 1만2000명까지 확대 전년 81명 제주도 늘어날 듯 문예재단 지원사업 집행 시행 축소 등 변경 허용키로

예술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 집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0만원 창작준비금 정책 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달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창작디딤돌'로 불리는 이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정책 지원 하는 내용이다.

제주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창작활동을 근거로 등록된 예술인이 2019년 기준 547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지난해 창작준비금을 받은 제주지역 예술인은 81명에 달한다. 이는 2017년 25명, 2018년 44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제주 문예재단이 실시한 예술인 등록 민원 대행 서비스 영향이 컸다. 올해는 특히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이 전국적으로 상·하반기 6000명씩 1만2000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주에서도 지원받는 예술인이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집중 예산 집행 지침 바뀐=제주문예재단은 올해 문화예술지원사업 집행 지침을 변경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상황 발생을 고려해 일부 불이익 조항을 없앴다.

중전대로라면 중도에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내년도 동일한 사업에 신청할 수 없지만 올해 지원 대상자 예컨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

반기에 행사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공연장이나 전시실 대관이 어렵고 개최 일정 확정하기 어려운 탓에 불가피하게 지원사업을 수행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등 지원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선 추후 문제부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나오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도내 문화예술인 70%가량이 연관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방식을 바꿔 집행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차 타고 도서대출 호응 속 '노쇼' 눈살

한라·우당도서관 두 곳서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주말 천권 넘게 빌려가지만 일부 이용자 예약후 미대출

제주지역 일부 도서관이 차량에서 대출 예약한 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른바 '북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쇼(No-Show)' 사례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공공도서관들이 기한없이 문을 닫자 이용자들을 위해 1인 5권까지 도서예약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제주도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과 제주시 우당도서관 2곳이 공간의 이점을 살려 차량 안에서 온라인 대출 예약한 책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수요일과 토요일에 '북 드라이브 스루'를 가동하고 있다.

운영 결과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한라도서관의 경우 지난 11일 도서대출 예약자가 239명 690권, 주말인 14일은 첫날보다 갑절 가량 늘어난 385명 1113권이였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로 바

깎 나들이가 줄어들면서 어린이도서 등 상대적으로 집에서 책을 빌려 보려는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서대출을 예약해놓고 해당 날짜에 가져가지 않는 이용자가 예약권수 기준으로 1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도서관을 보면 실제 도서대출 약속대로 '북 드라이브 스루' 장소인 도서관 주차장에서 책을 받아간 이용자는 11일 168명 519권, 14일 301명 1029권이였다. 반면 155명이 빌려보겠다고 255권은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시 서고로 향했다.

'북 드라이브 스루'는 이용자들에겐 편리하지만 도서관 직원들이 정상 운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품을 들이는 작업이다. 도서관 사서 등 직원들이 예약 현황을 보고 1000권이 넘는 책을 준비하고 대출 날짜에 맞춰 서가에서 주차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따른다. '노쇼'에 허탈감이 드는 이유다.

한라도서관의 진승량 사서는 "예상보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예약한 날짜에 책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사전에 미리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이용자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로 바

전선희기자

# 전시장에 넘실대는 봄·봄·봄

현인갤러리 기획초대전 이화여대 출신 작가 10명

코로나19 여파로 마음의 봄은 더디게 오는 듯 하지만 전시장엔 봄빛이 무르익는다. 꽃과 나무 그림들로 채워지는 전시 소식 때문이다.

제주시 도령로 이화오피스텔 2층에 자리잡은 현인갤러리가 '제주의

봄'이란 이름으로 초대전을 연다.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다수 개인전 경력에 있는 작가들 중심으로 10명이 빛어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화폭에 봄날의 사연이 넘실댄다.

출품작은 김선주의 '꽃을 담다', 김신자의 '숲이 부르는 노래', 김예란의 '바람에 하늘거리는 춤추는 향기' 등이다. 작품 제목에서 짐작하듯



김선주의 '꽃을 담다'.

봄, 푸르고, 노란 화면 그대로 봄이 왔다. 전시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열린다. 문의 064)747-1500. 전선희기자

# 문예재단 이사장 재공모 임추위 어떻게

예총·민예총 추천 등 7명 동일위원 적용 여부 관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지사의 '이사장 후보 재추천 요청'에 따라 이사장 재공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적용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예재단 이사장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 근거해 임원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복수 후보 추천을 보인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모두 7명으로 제주도지사 추천 1명, 제주도의회 추천 1명, 문예재단 이사회 추천 3명, 제주예총과 제주민예총 추천 각 1명이 참여한다.

이번 재공모는 문예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동일구성 운영'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직전 이사장 중도 사임으로 공모 사유가 발생했지만 선발이 무산되면서 재공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를 끌어가는 위원들의 면면도 응모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최근 문예재단에 이사장 재공모 선발에 따른 제반 절차를 1주일 정도 늦춰 착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에 맞춘 조치"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쫓지

제주 브랜드 공연 14건 응모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대본 공모'에 전국에서 14건(제주 2건)이 접수됐다.

지난 13일 마감된 이번 공모는 무대 공연 발표와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의 신화, 역사, 자연 등을 다룬 순수 창작물로 120분 내외에 걸쳐 800석 이상 극장에서 공연 가능한 대본과 약보를 모집했다. 제주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예술성, 무대화 발전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벌여 다음달에 당선작을 가려낼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대본 창작료와 작품료 4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아 초청·일반대관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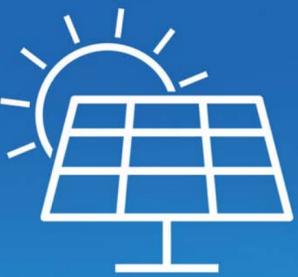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공간 이아 초청·일반대관 전시를 공모하고 있다. 올해는 갤러리1과 갤러리2의 특성을 살려 구분 모집한다. 갤러리1 초청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개인이나 단체 3명(팀)을 선정하고 갤러리2 일반 대관은 7명(팀)을 뽑을 계획이다. 초청 전시 지원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일반대관 서류는 이메일(artspaceiaa@gmail.com) 또는 방문접수(포트폴리오 등 첨부 자료)로 3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4)800-9333.

디지털 콘텐츠 무료 변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변환사업'을 발인한다. 이 사업은 오래된 비디오테이프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사업이다. 개인 기록영상과 제주에 소재한 비영리 기관·단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6mm, 8mm, VHS 테이프 형식만 변환이 가능하다. 신청 개수는 개인은 1인 3개 이내, 단체는 30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접수 기간은 개인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단체는 6월까지다. 희망자나 단체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대리인 접수는 안된다.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35-0615.

서귀포 도예 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이 '2020년 도예 아카데미'를 무료 운영한다. 도예 아카데미는 3개반별(기초·중급·중고급)로 15명씩 총 45명을 모집해 4월 6일 기초반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1회 4시간씩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로,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의 공정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 대신에 이달 28일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내년 모집부터는 신규 수강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재료와 가마소비는 본인 부담이다.



## 태양광 발전

##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전기요금 "확" 줄이기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